

일본의 TPP 정책 대강

- 일본정부(TPP종합대책본부)에서 종합적인 TPP관련 정책대강을 발표('15.11.25)
- TPP를 성장전략의 요체로 삼아, 지원 대상 중견·중소기업의 60% 이상이 해외시장 개척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야별로 구체적 수치목표를 명기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정책대강의 특징
- 일본정부(TPP종합대책본부)에서 종합적인 TPP 관련 정책대강을 발표('15.11.25)
- 동 보고서는 TPP를 성장전략의 요체로 삼아, 지원 대상 중견·중소기업의 60% 이상이 해외시장 개척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수치목표를 명기
- 각 분야별 수치목표에 더하여 일본정부는 新 수출대국화 등의 공격적인 대책과 함께,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수정·개선하겠다는 방침 등 공격적인 자세를 강조한 것이 특징

1. 기본적 관점

- TPP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의 요체로서, TPP의 효과를 일본의 경제재생, 지방 창생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TPP의 영향에 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는 데 정책목표를 둠

2. TPP 관련 정책 목표

1) TPP의 활용 촉진

(1) 성실한 정보제공 및 상담체제 정비

□ TPP의 보급, 개발

- 세미나·설명회 참가자 등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만족도 60% 이상을 정책목표로 설정

- JETRO,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, 상공회, 상공회의소 등의 지원기관들이 협력,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개최
- TPP정보에 관한 포털사이트를 설치하고 TPP를 활용한 비즈니스안내서, 원산지 증명절차 가이드라인을 정비

□ 중견·중소기업 등을 위한 상담체제 정비

- 상담창구이용자 등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에서 만족도 60% 이상을 정책목표로 설정
- 전국 각지의 상담체제 정비·강화와 함께 세관의 시스템을 정비하여 원산지규칙에 관한 무역업자로부터의 조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

□ 중소·중견기업 등의 신 시장개척을 위한 종합지원체제 강화

- 지원대상기업의 시장개척, 사업확대성공률 60% 이상을 정책목표로 설정
- 중앙정부 및 지자체, 각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지원기관 등에 의한 컨소시엄을 창설
- 제품개발, 국제표준화, 지적재산권, 인재, 해외기업과의 매칭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

□ 콘텐츠, 서비스, 기술 등의 수출촉진

- 2018년도까지 약 200억엔의 방송콘텐츠 관련 해외시장판매를 정책목표로 설정
- 콘텐츠의 해외사업을 꾀하는 외에, 모조품, 해적판대책 및 지적재산권 보호환경 향상, 협정국에 대한 정보발신 등을 추진

□ 농림수산물·식품의 전략적 수출

- 2020년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1조엔 목표를 조기에 달성

- 일본산 고품질 농림수산물제품의 수출확대, 수출저해요인 해소, 6차 산업화·지산지소에 의한 지역의 수익력 강화 등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
- 일본산 주류의 해외진개, 관광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일본의 식문화 및 식품의 해외 사업을 촉진, 지리적 표시(GI)활용을 촉진

□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촉진

- 2020년에 약 30조엔의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정책목표로 설정
- 엔차관 절차의 신속화, 상대국의 상황 및 성격에 대응한 리스크머니 공급확대, 인재육성에 의한 소프트 협력, 틈새일즈 실시 등을 추진하고 일본기업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가속화

2) TPP를 통한 강한 경제 실현

(1) TPP에 의한 무역·투자 확대를 경제재생으로 직결시키는 방책

□ 이노베이션, 기업간, 산업간 연대에 의한 생산성 향상 촉진

- 2020년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2%를 정책목표로 설정
- 상품과 인터넷을 연결한 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, 로봇 등의 분야 및 공통기반이 되는 선진적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개혁 추진
- 지적재산권제도를 TPP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근접시키고,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환경을 정비
- 에너지 절약투자 촉진 및 신상품·서비스개발 및 판로개척, 인바운드 확보 등 사업기반을 강화, 폭넓은 산업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

□ 대내직접투자 활성화 촉진

- 2018년도까지 적어도 총 470건(대형안건 60건 포함)에 달하는 JETRO에 의한 외국기업 유치를 정책목표로 설정

- 세계의 기업연구개발부문 등의 고부가가치 부문을 일본으로 유치하여 해외로부터 투자 및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일본기업과의 연구개발 등의 연대를 추진하여 글로벌·밸류체인에서 고부가가치거점·이노베이션 센터화를 목표

(2) 지역의 수익력 강화

□ 지역에 관한 정보발신

- 방일 외국인여행자수가 2천만명이 되는 해에 외국인관광객의 여행소비액 4조엔을 목표
 - 일본기술의 보급에 주력하는 동시에 농림수산물의 국내외 수요·소비 확대를 꾀함
 - 일본 각지의 식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프로모션과 식·농업 체험 등의 체재 콘텐츠를 축적함으로써 방일 외국인관광객의 지방유치 및 소비확대를 촉진

□ 지역자원의 결집·브랜드화

- 지원대상사업에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적절한 PDCA사이클(계획(P), 실행(D), 검토(C), 조치(A) 등의 순환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품질 개선활동을 하는 것)을 확립, 2020년도에 100% 확립을 목표
 - 6차 산업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산품, 기술, 기업 등을 연계시켜서 신사업을 창출, 해외전개를 촉진

3. 향후 대응

- 농림수산업 분야 대책의 재원은 TPP협정이 발효되어 관세가 삭감되어가는 과정에서, 기존 예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지고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기금 등의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한 장치를 구축
-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를 한층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나 일본 산업의 해외전개·사업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가일층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2016년 가을을 목표로 구체화

- 주요 시책은 정량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기존 시책을 포함하여 부단한 점검과 개선을 해나감

4. 정책대강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

1) TPP 활용 촉진

- 중견·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에 정보제공/TPP를 활용한 중견·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콘소시움 창설과 활용/수출 등의 사업전개를 위한 전문가의 지원/해외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제품·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/전략적 국제표준화·지적재산 보호활용 추진

2) TPP를 통한 강한 경제 실현

- 신산업구조비전 책정/미래 투자를 위한 관민대화/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한 이노베이션 촉진/지적재산 보호(TPP담보법)/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/에너지절약을 통한 중소기업자 등의 생산성 향상

3) 분야별 시책 전개

- 의욕 있는 농업종사자의 경영발전을 촉진하는 기계·시설 도입/내실 있는 무이자 등의 금융지원조치/농지중간관리사업의 중점실시구역 등에서 농지에 대한 가일층의 대구획화·범용화/중산간지역의 수익력 향상
-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외국과 상호 GI(지리적 표시)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

□ 시사점

- 이번 일본정부가 TPP의 국내대책으로 준비한 TPP 정책대강은 무엇보다도 분야별로 수치목표를 제시하고 농업도 포함하여 新 수출대국화를 표방하겠다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데 있음

- 이는 농업과 같이 TPP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도 방어형의 대책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임
- 이 같은 동 정책대강의 특징은 2015년 12월 22일 발표된 TPP 타결의 경제적 효과와도 관련이 있음
 - 이번 일본정부가 시산한 TPP의 경제적 효과는 14조엔으로 2013년 TPP가입 전 시산결과 3.2조엔의 4배를 상회하고 있음
 - 이 같은 시산결과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 즉, TPP의 마이너스 효과를 줄이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TPP의 플러스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

<참고자료>

넷케이신문(2015.12.21/22/26)